

사양길 연탄... 우분 활용한 연탄 전환 바람직

소통

에너지빈곤층 겨울나기

<4>·끝> 대체에너지 전환 시급

북풍한설, 뼈가 시릴 만큼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불경기 등으로 연탄 후원·지자체 지원이 줄면서 지역 연탄 사용 가구들이 정부가 주는 연탄쿠폰 한 장에 의지하며 겨울을 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 에너지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환경·경제적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광주·전남도·전주연탄은행에 따르면, 지역 연탄가구는 광주 1116곳·전남 3975곳 등 총 5091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 등 난방비 부담에 직면한 에너지취약계층은 3146가구(62%)에 이른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매년 54만원의 '연탄쿠폰(카드)'을 지원받는다. 이 금액은 한 장당 900원인 연탄을 고작 600장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일반 연탄 가구 겨울철 평균 소모량이 800~1000장인 점에 비해 몹시 부족한 물량이다.

광주는 부족한 수를 메우기 위해 자체 선정한 250가구에 연탄 150장을 더 지원하고 있지만,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엔 역부족이다. 전남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따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는다.

설상가상 코로나19·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연탄 후원조차 줄었다.

광주·전남은 지역에 연탄은행이 없어 전북 전주연탄은행에서 연탄 나눔을 받고 있다. 이날 기준 전달된 연탄은 1만장에

광주·전남 연탄가구 5100세대 지역 에너지빈곤층 지원책 없어 연탄 태양광·LPG 전환 쉽지않아 영주시 축분연탄 개발 등 '눈길' "에너지빈곤층 지원 대안 모색"

불과하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7만장에 비해 크게 쪼그라든 수치다.

태양광·가스LPG·기름 보일러 등 연료 전환도 쉽지 않다. 전환에 자금이 많이 들 뿐더러 교체 이후 난방비 등도 부담되기 때문이다. 연탄보일러를 쓰는 가구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소외가구 등 복지 소외계층이다.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취약계층은 급격히 상승한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다. 무리해서 전환한 저소득 고령층이 차상위계층으로 변하는 역효과도 있다"며 "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자체가 에너지빈곤층의 생활 현장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전문가는 보일러 전환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에 맞춰 여러 대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철호 동신대 노인복지학 교수는 "남선연탄 폐업 위기 등 연탄이 점차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는 여전히 연탄으로 생활하는 이들이 많다"며 "타지역 사례를 참고해 지자체에서 연탄 대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



경북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우분연탄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26일 전주연탄은행이 한 지역농촌마을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연탄은행 제공

금회 등과 협업한다면 연구 명분도 만들 수 있다. 노인들은 시설을 바꾸는 것보다 연탄 사용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실제 경북 영주시는 지난 2020년 '우분'(쇠똥)을 활용한 연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발효·탄화 처리 과정을 거친 우분을 무연탄과 배합해 연탄으로 만들었다. 이 연탄은 기존 무연탄보다 뛰어난 화력(4500kcal)을 보이면서도, 유해가스 발생량은 50%가량 적게 배출해 친환경적이다.

경북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개발 이후 현재 상용화 과정에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주민 갈등 등을 일으키는 가축분뇨를 이용해 연탄을 만든다는 점에서 미래 가치가 높다. 상용화만 된다면 우분연탄 제조 방식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마땅한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연탄 시장이 갈수록 줄고 있다. 당장은 남선연탄이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 인접한 화산 등지로 옮겨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회복지단체 등과 논의해 연탄 공급을 지속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주시 사례는 신선하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해 약 800만톤의 우분이 생산되는 전남 지역도 접목이 가능하다"며 "섬 지역의 경우 연탄을 비싸게 받아오는 주민들이 많다. 사각지대 주민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송민섭·정성현 기자

e스포츠, 정부 내년 스포츠진흥 기본계획' 반영

장애인 지원·전문인력 양성 등

e스포츠가 정부의 내년도 국가스포츠 정책에 반영돼 광주·전남지역 저변 확대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

다. 이번 계획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스포츠진흥 법정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시행된다.

정책위는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예리사민간공동위원장 등 9명이 위촉됐다. 목표는 △2027년까지 스포츠 산업 100조 원 달성 △엘리트 체육인 훈련여건 개선 △학교·생활

스포츠 강화 등이다.

정부는 스포츠산업 저변 확대 계획에 e스포츠를 명시했다.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지난 15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지속 개최하기로 했다. '온 국민의 스포츠'를 모토로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스포츠 여건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지역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설 경기장 구축 및 운영도 지원한다. 지역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광주에는 지난 2020년부터 조선대 해오름관에 전국 최대 규모 e스포츠경기장이 들어서 있다. 정부는 기존 광주·대전·부산에 이어 경남·충남에도 e스포츠경기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존 e스포츠 종목 외 전통 스포츠·가상현실(VR, AR) 기술을 접목한 '가상스포츠(가칭)'도 지원한다. IOC가 2021년

발표한 '가상스포츠 개발' 장려 내용과 맞닿아 있다.

지원 분야는 △실내 서핑 △스크린 골프·스키·보드·수영 등이다. 생활 스포츠로 발전한 만큼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의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터로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